



3 미국, 경제 클러스터의 녹색전환 대응을 위한 정부 전략 제안

⇒ 보스턴컨설팅그룹(BCG)은 녹색전환에 따라 기존의 경제 클러스터들이 맞을 기회와 위기, 정부의 대응전략 등을 정리한 기고문 발표*(’24.5.)

* Are Economic Clusters Ready for the Green Transition?

- 녹색전환은 ‘규제 기준 강화,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, 청정기술 비용 감소,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’라는 상호 연계된 변화로 인해 촉진
 -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개별기업이 단독 대응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경제 클러스터의 공동 노력과 공유 인프라,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생태계 수준의 대응 필요
 -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전환이 경제 클러스터에 미칠 부담과 기회를 분석하고, 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
- 동 기고문에서는 녹색 경쟁으로 인해 기존의 경제 클러스터가 직면하게 될 위험과 기회를 다음과 같이 정리

1) 위험

- 시장 수요가 클러스터의 핵심 재화나 서비스에서 ‘친환경’ 대안으로 변화하여, 클러스터가 외부 공급망과 더불어 내부 제조 과정 등을 혁신해야 하는 상황 발생
 - ※ 예: 독일 바덴-뷔르템베르크 자동차 클러스터는 2010년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체 생산량의 99%를 차지했으나, 2022년에는 그 비율이 80% 미만으로 감소
- 친환경 법규는 클러스터 운영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침
 - ※ 예: EU 삼림벌채 규제로, 생산량의 1/5을 유럽으로 수출하던 브라질 대두 생산 클러스터 재편
- 금융기관이 탈탄소화 중심으로 투자를 전환함에 따라,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등 탄소 고배출 기업의 자본 접근성 하락

2) 기회

- 신기술과 시장이 새로운 원자재를 요구함에 따라 업스트림 재료 클러스터에 대한 수요 증가
 - ※ 예: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여 인도네시아 니켈 제조 클러스터와 칠레 리튬 공급망 발전 가속화
- 풍력이나 태양열을 활용해 전력 부문을 혁신하는 등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바람, 태양 등 자연 자원의 이점 활용
- 친환경 소재, 에너지, 제품 및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 수요가 발생하여, 관련 클러스터의 개발 기회 창출
- 정부는 경제 클러스터가 녹색전환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, 경쟁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보호(Safeguard)* 및 촉진(Spark)** 전략 구사
 - * 기존 클러스터가 진화하고, 회복력을 높이며,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존 클러스터를 보호
 - ** 새로운 친환경 경쟁 우위를 실현함으로써 경제 클러스터의 새로운 기회 창출

1) 보호(Safeguard) 전략의 주요 수단

- 에너지 집약적 클러스터의 탈탄소화 및 비용 경쟁력 유지를 위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접근 지원
 - ※ 예 : 스페인은 청정수소, 재생에너지, CO₂ 포집을 촉진하여 20만 개의 일자리와 20억~30억 유로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바스크 산업 슈퍼 클러스터를 지원
- 클러스터가 사용하던 기존 프로세스를 친환경화하여 경쟁우위 확보
 - ※ 예: 인도 티루푸르 니트웨어 클러스터는 9천만 달러의 공공 투자를 통해 무방류 (Zero Liquid Discharge) 전략을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을 줄이고 가뭄의 영향을 차단
- 친환경 재교육을 지원하여 기존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의 성장 유도

2) 촉진(Spark) 전략의 주요 수단

-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녹색전환의 기회를 중심으로 기존 클러스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녹색지역(green zone)으로 투자 유치
 - ※ 한국 송도 국제업무지구는 녹색건설, 스마트 폐기물 및 그리드 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클린테크 혁신 모델로 부상
 - ※ 호주 필라바 재생에너지 구역은 그린 수소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6GW의 재생 풍력 및 태양광을 설비를 구축하여 인근 제조업 및 광물 가공 클러스터의 탈탄소화 지원
 - 인센티브와 수요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촉진하고 앞서 움직이는 기업(early movers)을 지원
 - ※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금 조항으로 청정에너지 도입을 지원하며, 청정구매법은 연방 구매력을 활용하여 친환경 건축을 지원하고 재활용 및 건설 부문의 일자리 창출
 - 업스킬링(Upskilling)을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, 새로운 클러스터의 출범과 기존 허브의 성장 지원
 - ※ 호주의 국가 청정에너지 기술 이니셔티브는 38개 핵심 직종에 대한 업스킬링을 추진하여 9만 명의 근로자가 재생에너지, 에너지 효율, 배터리 저장 등 분야의 필수 기술을 습득
 - 클러스터의 혁신을 촉진하고 시너지 창출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제공
 - ※ 미국 테네시 전기차 센터는 전기차 기업과 연구 그룹을 모아 6,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운송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
- 정부가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접근이 필요
- (위험과 기회 평가) 클러스터 차원의 혼란 가능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
 - (협업 증진) 클러스터 내 협업과 조정을 촉진하고, 민간 부문과 연구 기관, 공공 부문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협업 활성화
 - (중앙 조정 기능) 개별 클러스터의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각각의 전략을 하나의 종합적인 전략하에 조율하여 성과를 최적화

출처 : 보스턴컨설팅그룹 (2024.5.10.)

<https://www.bcg.com/publications/2024/supporting-economic-clusters-in-green-transition>